

스포츠 지원부터 재능 발굴, 채용까지 장애인 후원 넘어 ‘홀로서기’

은행·저축은행 사회공헌 박차
웰컴저축은행
시각장애 마라토너에 의료기기
신한·KEB하나은행
장애 예술인 육성, 지원 프로그램
신협중앙회
1급 중증 장애인 채용 ‘고용 확대’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은행권의 후원 노력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차원으로 활동 영역이 확장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해 시각장애인을 후원한다. 웰컴저축은행이 후원하는 시각장애인 한동호 씨는 후천적 시각장애병변인 ‘레버씨 시신경 위축증’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웰컴저축은행은 ‘웰컴드림글래스(WELCOME DREAM GLASSES)’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동호 씨가 코스 가이드 없이 혼자 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웰컴드림글래스는 안경을 통해 전방에 있는 물체를 컴퓨터가 구분하고, 이를 소리로 한동호

씨에게 알려줘 앞선 장애물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GPS 기능이 탑재돼 있어 미리 등록된 코스에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장애청년들의 스포츠를 지원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을 지원 중이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회째 시행중인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청년들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도 성장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장애인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 장애인 디자인 스쿨 2019 : 저스트 아티스트(Just Arti

st)’를 진행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지난해 서울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서울시 중구 광화문에 있는 ‘신한갤러리 광화문’에서 장애 예술인인 전동민 작가의 기획전 ‘아워스토리(OURS TORY)3’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1급 중증 장애인 및 5, 6급 장애인을 특별 채용해, 장애정도·역량·업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수신관리·사회공헌·공제영업지원 등의 직무에 배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장애인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현대차, 원천기술 확보 시동

‘기초선행연구소’ 설립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첨단소재와 친환경 에너지 중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선행연구소를 세우고 그룹 차원의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제품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요소기술과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기초선행연구소(IFAT)’를 최근 새롭게 설립했다. 현대차그룹은 기초연구 중심의 연구소인 IFAT를 세워 심화하는 글로벌 원천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초연구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집중해 제품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신설은 기존 제품개발의 각 부문에서 선행연구를 담당하던 연구원들을 한 조직에 모은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내다봤다. IFAT는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의 직속으로 친환경에너지와 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2개 랩과 하위 5개 연구팀으로 구성된다. 친환경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에너지의 저장과 변환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에너지연구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추얼 소재 설계·분석과 친환경 촉매기술·화학소재를 연구하는 ‘촉매연구팀’, 이산화탄소 저감과 바이오 소재, 수소에너지를 연구하는 ‘환경기술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신설된 IFAT는 사내의 유관 부문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 외에도 신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반 기술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우수 인재 확보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자담배 인기에 작년 담배 수입액 23년 만에 최대폭 증가

작년 담배 수입액이 전자담배의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3년 만에 가장 컸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품목별 수입액 통계를 보면 작년 담배(담배 및 담배제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억987만6천달러 증가한 5억8천933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총액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시점인 197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권력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회에서 한 직원이 신제품 2종 중 ‘아이코스3’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 “세계경제 둔화흐름 가속… 경기부양 주력해야”

세계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하방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국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 둔화 흐름 가속화와 하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기가 현재 수축국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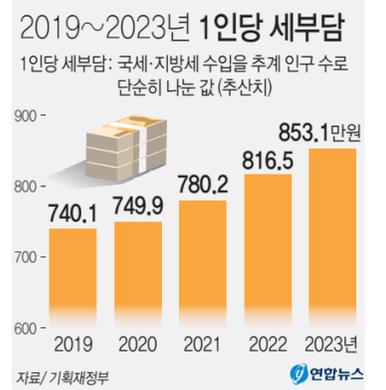
가고 봤다. OECD 회원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6월 100.1을 기록한 후 올해 1월 99.4, 2월 99.3을 지나 7월에는 98.8까지 하락했다. 경기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수축국면으로 여겨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2%로 낮춰 잡았다. 주요국 상황을 보면 미국은 무역 분

쟁 격화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에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2.0%(연율 기준)로 1분기(3.1%)에 비해 낮아졌다. 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의 확장적 운용, 규제 개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 등을 통해 경기 반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내년 국민세금 부담 인당 750만원 ‘육박’

2023년 850만원 돌파 전망

국민 1인당 짊어질 세금 부담이 내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 추산이 나왔다.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추산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이다. 중위추계 기준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실제 국민이 낸 세금 평균치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세수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있다. 국민 세 부담을 측정하는 또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엔 하락한다. 정부는 다만 조세부담률이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라돈제품 수거 1년새 12만개… 처분법은 여전히 ‘빈칸’

노동래 의원 “폐기방안 시급”
‘라돈침대’ 사태 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약 1년간 전국에서 수거한 제품은 총 11만7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거품에 대한 처분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동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 8월 23일까지 총 17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부적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거 신청이 이어졌고, 해당 업체는 신고 물량 수거에 나섰다. 수거 신청이 가장 많은 제품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진침대 매트

리스다. 총 7만972건의 신고가 들어와 모두 수거했다. 이어 대한하이텍의 온수매트는 1만9418건,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침구가 8270건, 티엔아이 베개커버가 7287건 수거됐다. 지난 2011년 세슘(Cs-137)이 발견돼 문제를 일으켰던 공릉동 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갔다. 하지만 대진침대 매트리스 등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방폐물로 규정되지 않아 시설 처분이 불가능하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도 제조업자의 수거·폐기 조치 의무만 있을 뿐 폐기 방법 규정은 없다. 외국의 경우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폐기물은 소각해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만 모아 태우고, 소각재를 컨테이너에 따로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래 의원은 “환경노동부가 라돈제품 처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마쳤다”며 “원안위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라돈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